

성서언어의 호칭에 대한 한일 비교*

-통시적 관점에서 번역 성서 분석-

안 증 환**

目 次

1. 서론
 2. 호칭표현 비교
 - 2.1 『舊譯 聖書(1911)』와 일본어 『文語譯 聖書(1917)』
 - 2.2 『개역성경(1956)』과 『口語訳聖書(1954)』
 - 2.3 『공동번역성서(1977)』와 『新共同訳聖書(1987)』
 3. 맺는말
-
-

1. 서론

본고는 번역서인 한국어 성서와 일본어의 성서의 통시적 접근을 통해 두 언어의 호칭방법이 지난 100여년 사이에 어떤 변화를 보여왔는가를 비교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어성서나 일본어성서는 히브리어(구약성서)나 그리스어(신약성서)를 원문으로 하면서 19세기 후반 번역이 완성된 이후 몇 차례의 개역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몇 년이라는 정해진 시간이 전제되는 것은 않지만, 몇 십 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성서개역은 성서가 곧 두 언어의 근대어 변천과정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동일한 원전을 가지면서도 번역 및 개역과정에서 상호의존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번역문이기 때문에, 한일 두 언어로의 번역과정을 통한 비교고찰은 언어일반의 공통적인 특징을 볼 수 있음과 동시에 두 언어의 상대적 특징도 규명

* 본 논문은 2007년도 한남대 교비연구비 지원에 의해 작성되었음

** 한남대. 일어학

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고 본다.

본 연구의 주제로 호칭을 비교대상으로 취한 것은 서로 다른 언어문화권의 언어가 번역될 때, 타문화권의 호칭표현이 어떤 방식으로 수용되고 변화되어 가는가를 보기위해서이다. 성서에는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등장한다. 왕과 신하, 장군과 부하, 혹은 선생과 제자처럼 신분이 다른 다양한 등장인물이 나오는가 하면, 일반 군중을 대상으로 하는 연설 같은 것도 있다. 이때 각각에 대한 호칭의 수용방법이, 문화가 다르고 언어구조가 다른 번역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될 수 있었음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개역작업이 이루어질 때마다 어휘나 표현에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각각의 성서의 호칭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성서번역이 초기에는 word to word라는 축자역을 엄격히 고수했지만 개역작업이 거듭되면서 의미전달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호칭표현도 번역되는 언어권의 문화에 맞추려는 현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성서언어는 번역시 새로운 번역어의 생성과 더불어 그 번역어가 정착되는 과정에서의 다양한 변화양상까지 보여주는 중요한 언어학적 자료가 되는 것이다.

한편 성서언어의 특징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성서언어의 특징은 한 마디로 ‘節制’라는 단어에 모아진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일본어처럼 유난히 인칭대명사가 크게 분화된 언어인 경우, 성서에서는 그 모든 것이 사용되지 않고 대표형만 사용된다. 마찬가지로 성서언어에는 다양한 모달리티 형태도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특정 언어에서 보이는 언어의 보편적인 것이 모두 망라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편으로 성서언어는 번역어라는 한계로 인해 다른 장르에서 보이지 않는 특수한 표현이나 어휘들도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축자역 번역에서는 원문의 단어와 1대 1로 대응시킬 수 있는 단어를 찾는 것이 중요하고, 의미를 중시하는 번역에서는 두 언어권의 언어문화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호칭표현을 중심으로 한일 성서언어를 비교하는 본 논문에서는 이런 것들이 한국과 일본에서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가를 보게 될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채택한 연구방법은 아래에 제시한 성서에서 호칭을 나타내는 어휘들을 추출해 비교하는 방법을 취했다. 본 연구에 채택된 성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어 성서는 『舊譯 聖書(1911)¹⁾』 『개역 성경(1956)』 『공동번역 성서(1977)』 이고, 일본어 성서로는 『文語譯 聖書(1917)²⁾』 『口語訳 聖書

1) 『旧訳 聖書』는 1911년에 구약성서가 한국어로 완역되면서 1900년에 이미 완역된 신약성서와 합본된 것을 가리킨다.

2) 여기의 일본어 『文語譯聖書』는 2006년 일본성서협회에 의해 明治訳(1887)의 旧約聖書와 大正訳(1917)의 新約聖書を 합본시킨 것을 가리키는데, 본고에서의 발행년도 표기는 『大正譯聖書』 발행

(1954)』 『新共同訳 聖書(1987)』이다. 물론 이들 외에도 번역된 성서들이 여럿 있으나³⁾, 필자가 이들을 선정한 것은 무엇보다도 간행시점의 유사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2. 호칭표현 비교

한일 두 성서에 나타난 호칭표현을 비교할 때 초점은 다음과 같은 것에 맞춰진다. 첫째, 번역초기의 성서에 나타난 호칭명사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들은 어떤 특징을 갖는가. 둘째, 그것들이 몇 회의 개역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셋째, 각각의 비교사항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 등등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접근법으로 두 나라의 번역초기 성서의 호칭 중 일부를 추출해 비교분석하고 이들의 변화를 추적해 가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따라서 2.1에서는 한국어 『舊譯 聖書』와 일본어 『文語譯 聖書』에 나타난 호칭표현을 비교하고, 2.2에서는 한국어 『개역성경』과 일본어의 『口語訳 聖書』에서 각각 어떤 변화를 보이는가를 살피고, 2.3에서는 한국어 『공동번역 성서』와 일본어 『新共同訳聖書』가 각각 앞의 것들과 어떤 변화를 보이는가를 살피면서, 각 항에서 한국어 성서와 일본어 성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기로 한다.

2.1 『舊譯 聖書(1911)』와 일본어 『文語譯 聖書(1917)』

먼저 한국어 『舊譯 聖書』와 일본어 『文語譯 聖書』에서 호칭으로 쓰인 명사들을 일부 추출한 바, 본 장에서는 이들을 제시함으로서 분석과 비교의 출발점으로 삼기로 한다.

- (1) a. 하나님, 주, 왕, 장관, 선성님, 아버지, 부친, 부형들, 여러분, 너인, 아브람, 인성, 빅성들, 쇼즈, 형대들, 랍비...
- b. 神、主、王、將軍、君、父、兄弟たち親たち、人々、をんな、アブラム、人の子、万民、子ども、子、ラビ...

년도인 1917년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3) 일본에는 J.C 헤본과 S.R 브라운역(1872) · N. 브라운역(1879) 등 明治訳 이전에 간행된 개인역이 많고, 한국에는 로스역(1887) · 게일역(1925)과 같은 개인역이 있으나 표준새번역(1993) · 개역개정(1998) 등 최근 판이 많다.

- c. God, Lord, king, captain, father, brethren and fathers, sirs, woman, Abram, son of man, peoples, son, brethren, Rabbi, ...

예문 (1a)(1b)가 한국과 일본 각각의 초기 성서번역에 나타난 호칭명사들이고, (1c)는 그런 번역어가 나오게 된 근거로 보이는 것을 영어 성서에서 발췌한 것이다. 특히 (1c)는 초기 한국어 성서번역의 기초본문이 되었던 『American Standard Version(1901)』에 의한 것으로, 한국이나 일본 모두 초기 성서번역이 미국이나 영국 등의 선교사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을 고려하면 이는 적절한 제시라고 생각한다⁴⁾.

한국어와 일본어의 이들 호칭명사 비교를 통해 우선 확인되는 것은 초기 성서번역에서 한국어가 일본어에 비해 한자어가 월등히 많이 차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예문 (2)는 각각의 호칭명사 중에 한자어만을 추출한 것으로, (2a)(2b)의 비교를 통해 위의 진술이 확인된다.

- (2) a. 주, 왕, 장관, 부친, 부형, 녀인, 인성, 빅성, 쇼즈, 형데,
 b. 主、王、將軍、兄弟、万民、
 c. 上帝, 人子, 王, 小子, 婦, 主, 父, 兄弟, 父兄弟, 衆, 衆民, 長者

즉 (1)에 제시된 한국어 호칭명사 중 한자어는 (2a)의 10개인데 대해, 일본어 성서에서는 (2b)의 5개밖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초기 성서가 번역될 당시 두 나라의 어휘체계의 상이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특히 식자층 어휘에서 한국인이 일본인보다 한자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판단은 초기 한국어 성서가 한문성서를 중역(重訳)한 것이라는 차원을 넘는다. 이를 입증해 주는 것이 초기 한일 두 나라의 성서번역에 영향을 준 중국의 『文理譯 聖書』와의 비교일 것이다⁵⁾.

(2c)에 『文理譯 聖書』에서 (1)의 호칭명사 중 ‘아브람’이라는 인칭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단어를 발췌해 놓았다. 이들을 비교해 보면, (2a)의 한국어 호칭명사에서 중국어 성서와 동일한 한자어를 쓸 수 있는 것은 ‘주, 왕, 쇼즈, 형데’ 4개뿐으로, 「主、王、兄弟」 3개인 일본어 성서와 큰 차이가 없다. 결국 한국어의 나머지 6개와 일본어 2개 한자어는 일반에 사용되던 것을 원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실이 곧 초기 성서번역에서 한국어가 일본어에 비해 한자어가 월등히 많았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각각의 성서 개역과정에서 어

4) 『성서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대한성서공회, 1995, p47

5) 여기서 말하는 중국어 文理譯 聖書는 1855년에 출판된 上帝版을 가리킨다. (참고) 『개화기 한국어 성서의 번역어 연구』 2005, 広剛, 고려대학교원 박사학위 논문, p.30

편 변화를 보일지에 관심을 갖게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한편 이들 초기 성서번역의 호칭표현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두 나라 모두 호칭명사에 호격조사를 붙이고 있다는 점이다.⁶⁾

- (3) a. 하느님이여 나를 멀리 마시옵소서 (시71:12)
- b. 왕이여 이 나무는 곳 왕이니 대개 왕피서 자라 견고하시고 장대하시사 (단4:22)
- a'. 神よわれに遠ざかりたまふなかれ
- b'. 王よ是はすなはち汝なり汝は長じて強くなり汝に勢は盛にして

그런데 한국어 호격조사는 호칭대상의 신분에 따라 ‘이여/여(이하 대표형 ‘이여’)와 ‘아/야(이하 대표형 ‘아’)로 구분된다. 즉 화자가 호칭대상을 존대해서 부를 경우는 ‘이여’를 선택하고, 하대해서 부를 경우는 ‘아’를 선택한다. 이런 현상은 일본어와 구분되는 한국어의 특징으로 예문 (4)를 통해 확인된다.

- (4) a. 장관이여 당신의게 흘 말씀이 잇느이다 (열하9:5)
- b. 여러분이여 엇지 이러흔 일을 흐느나 (행14:15)
- c. 아브람아 두려워흐지말나 (창15:1)
- d. 쇼즈야 네 죄를 사흐엿다 (막2:5)
- a'. 將軍よ我汝に告ぐべきことあり
- b'. 人々よ、なんぞ斯かる事をなすか、
- c'. アブラムよ懼るゝなかれ
- d'. 子よ、汝の罪ゆるされたり

예문 (4)를 보면, (4a)(4b) ‘장관’과 ‘여러분’에는 호격조사 ‘이여’가 붙어있고, (4c)(4d)의 ‘아브람’과 ‘쇼즈’에는 ‘아’가 붙어있어 화자가 호칭대상을 존대하는가 아니면 하대하는가에 따라 조사의 형태가 다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a’)~(d’)의 일본어는 모두 「よ」로 통일되어 한국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한국어 호격조사의 이러한 특징은 초기 성서 번역에서 명확하게 나타남으로서 화자와 호칭상대와의 관계가 명시된다. 예문 (5)를 보면 동일한 호칭명사 ‘너인’에 붙은 호격조사가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6) ‘선생님’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고유의 호칭명사 ‘Rabbi’에서만 유일하게 구별이 있다. 즉 한국어는 호격조사가 붙어있으나, 일본어에는 호격조사가 붙어있지 않았다.
 a. 나다나엘이 더답호디 랍비여 하느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 님군이로소이다 (요1:29)
 b. ナタナエル答ふ、『ラビ、なんぢは神の子なり、汝はイスラエルの王なり』

- (5) a. 예수- 굴으샤더 녀인이여 나와 무슴 상관이 잇느뇨 (요2:4)
 b. 예수- 니러나셔 보시고 닐으샤더 녀인아 더희가 어더 잇느냐 (요8:10)
 a'. イエス言ひ給ふ『をんなよ、我と汝となにの関係あらんや』
 b'. イエス身を起して、女のほかに誰も居らぬを見て言ひ給ふ『をんなよ、汝を訴へたる者どもは何処にをるぞ、』

성서를 근거로 살펴보면, (5a)의 ‘녀인’은 예수의 어머니이고 (5b)의 ‘녀인’은 죄를 짓고 예수 앞에 끌려온 여자이다. 앞에서 언급한 영어성서 『American Standard Version(1901)』에서는 둘 다 ‘woman’으로 나왔으나 한국인의 언어감각에서는 이 둘을 동일시할 수 없어 호격조사를 통해 차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5a’)(5b’)의 「をんなよ」에서 보듯이 일본어에는 그런 구분이 없다.

유사한 장면이 또 있다. 다만 (5)와 다른 것은 영어성서에서 둘 다 ‘father’로 명백한 존대상대라는 점이다. 일본어 『文語譯 聖書』는 (5)와 마찬가지로 「父よ」로 동일한 호칭이 선택된 데에 대해, 한국어 구역에서는 (6)에서 보듯이 ‘아버지여’와 ‘부친이여’로 구분되어 나타난다.

- (6) a. 예수- 이 말씀을 못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굴으샤더 아버지여 째가 니르럿 스오니 (요17:1)
 b. 아들이 닐으더 부친이여 내가 하늘과 부친의 죄를 엇엇스니 (눅15:21)
 a'. イエスこれらの事を語りて、目を挙げ天を仰ぎて言ひ給ふ『父よ、時来れり、』
 b'. 子、父に言ふ「父よ、我は天に対し又なんぢの前に罪を犯したり。」

(6a’)(6b’)의 일본어 호칭에 「父よ」가 오는 것은 (5)를 통해 충분히 유추 가능하다. 그러나 (6a)(6b)에서 ‘이여’라는 호격조사를 공유하면서도 호칭명사를 ‘아버지’와 ‘부친’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본다. 이것 역시 성서의 본문을 근거로 살펴보면, (6a)는 예수가 하늘에 계신 자신의 아버지를 부르는 장면이고, (6b)는 일반의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를 부르는 장면으로 성격이 다르다. 이것을 한국어 성경에서는 ‘아버지’와 ‘부친’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초기의 성서 번역이 word to word라는 축자역을 따랐으나, 한국인의 언어감각으로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는 것은 반드시 구분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료가 된다. 이와 관련해 이들 초기 번역성서의 호칭표현 비교에서는 번역당시 두 나라 대우표현에 흥미있는 차이점이 발견되기도 한다. 한국어 성서가 존대대상을 세분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어 성서는 예문(7)에서 볼 수 있듯이 하대대상을 세분해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예문

(7)에서는 (6)과는 반대로 한국어 하나의 호칭이 일본어에서는 복수개로 번역되고 있는데, 그것은 하대의 대상인 한국어 ‘쇼즈야’라는 호칭의 경우로 일본어에서는 「子よ」와 「子どもよ」로 구분되는 것이다.

- (7) a. 예수-더희의 밋음을 보시고 반신불슈드려 널으샤디 쇼즈야 네 죄를 사히엿다히시니 (막2:5)
- b. 예수-널으샤디 쇼즈야 너희가 먹을 것이 잇느냐 (요21:5)
- a'. イエス彼らの信仰を見て、中風の者に言ひたまふ、『子よ、汝の罪ゆるされたり』
- b'. イエス言ひ給ふ、『子どもよ、獲物ありしか』

우선 성서의 본문을 근거로 살펴보면, (7a)의 ‘쇼즈’는 단수인데 반해 (7b)의 ‘쇼즈’는 복수를 가리키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이것은 예문 (7)에서 직접 확인된다. (7a)에서는 ‘쇼즈야 네 죄를...’의 단수 ‘너’로 이어지나, (7b)에서는 ‘쇼즈야 너희가...’의 복수 ‘너희’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어 성서에서는 ‘쇼즈야’로 통일됨으로서 이들이 단수인지 복수인지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예문 (7)의 「子」와 「子ども」는 단순히 단수와 복수의 구분일까, 그리고 한국어 초기 번역성서의 호칭표현에서는 복수형태는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그러나 한국어 『舊譯聖書』의 호칭에 복수형태 ‘들’이 빠져있던 것은 아니다.

- (8) a. 예수-다시 디답히여 쥘으샤디 쇼즈들아 지물을 의지하는 사롬은 하느님의 나라에 드러가기가 어려울진더 (막10:24)
- b. イエスまた答へて言ひ給ふ、『子たちよ、神の国に入るは如何に難いかな、富める者の神の国に入るよりは、』

(8a)의 한국어문에 ‘쇼즈들아’로 복수형태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일본어문 (8b)에서는 복수접미어 「たち」가 붙은 「子たちよ」로 실현되고 있다. 때문에 일본어 『文語譯聖書』에서 한국어 ‘쇼즈’와 ‘쇼즈들’이 「子」「子ども」「子たち」로 구분되는 것은 단순히 단수와 복수의 개념을 넘는 또 다른 것이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広辞苑』을 통해 확인하면, 「子たち」는 단순한 복수개념에 머물지만 「子ども」에는 복수의 개념 외에 손아랫사람에 대한 친밀한 감정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러한 일본인의 언어감이 성서번역에 반영된 것이다.⁷⁾ 결국 (7b)의 호칭이 ‘쇼즈들아’가 아니고 단수 ‘쇼즈

7) 영어성서 『American Standard Version(1901)』에서는 (요21:5)의 ‘쇼즈’와 (막10:24)의 ‘쇼즈들’은 복수인 ‘children’으로, (막2:5)의 ‘쇼즈’는 단수인 ‘son’으로 나와 있다. 따라서 (요21:5)의 일본어

야'로 나타난 배경은 의문이지만, (6)~(8)의 비교분석을 통해 한일 두 나라의 초기 성서번역에서는 한국어 호칭은 손윗사람에 대한 2차 구분이 있었던 것에 대해, 일본어 호칭은 손아랫사람에 대한 2차 구분이 있었다는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한일 초기 성서 번역본인 한국어 『舊譯 聖書』와 일본어 『文語譯 聖書』를 통해 한국어와 일본어 호칭표현의 수용과정을 대조해 보았다. 대조결과를 공통적인 것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구분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통적인 것으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두 나라 성서 모두 호칭표현에는 호격조사가 붙었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초기 번역 당시 기초 본문으로 볼 수 있는 영어성서를 근거로 할 때, 한국어 성서와 일본어 성서 모두 영어성서의 단어 하나가 복수개로 번역된 것들이 있어 완벽한 축자역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한국과 일본 각각의 언어문화 특징이 성서번역에 초기부터 개입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으로, 그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차이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었다. 첫째, 일본어는 호격조사가 하나인데 반해, 한국어는 호칭상대가 존대인가 하대인가에 따라 호격조사가 구분된다. 둘째, 한국어는 존대 호칭에서 일본어는 하대 호칭에서 성서원전의 한 가지 호칭이 복수개로 번역되고 있었다.

다음 2.2에서는 이러한 성서의 초기 번역본에 나타난 현상들이 『개역성경(1956)』과 『口語訳聖書(1954)』에서는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보기로 한다.

2.2 『개역성경(1956)』과 『口語訳聖書(1954)』

한국어 『개역성경』과 일본어 『口語訳聖書』는 현대어 표기법이라는 점에서 앞의 『舊譯 聖書』나 『文語譯聖書』와 크게 구분된다. 그 차이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한국어 『개역성경』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사용했다는 것이고⁸⁾, 일본어 『口語訳聖書』는 文語體에서 口語體로의 문체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두드러진 외형적 특징으로 들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외형적 변화가 호칭표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두 나라 모두 성서의 개역과정에서 호칭표현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몇 가지 발견된다.

우선 호칭명사의 어종에 나타난 변화이다. 어종의 변화는 (9)에서 보듯이 고

「子ども」와 (막10:24)의 일본어「子たち」도 영어성서에서는 동일하게 children이라는 복수를 가리킬 뿐이다.

8) 사실 1911년의 『旧訳 聖經』에 대한 개역은 1939년에 이루어졌고, 1956년의 『개역성경』은 그 1939년판을 한글맞춤법 통일안에 따라 새 철자법으로 바꾼 것이다. 『성서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p50.

유어가 다른 고유어로 교체된 경우, 한자어가 다른 한자어로 교체된 경우, 한자어가 고유어로 교체된 경우, 고유어가 한자어로 교체된 경우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 | | | | | |
|--------|-----|---|------|---------------|
| (9) a. | 人々 | → | 皆さん | (使徒行伝14:15) |
| | 子ども | → | 子たち | (ヨハネ21:5) |
| b. | 녀인 | → | 여자 | (요2:4, 요8:10) |
| | 인칭 | → | 인자 | (겔6:2) |
| | 主 | → | ご主人様 | (マタイ25:11) |
| c. | 부친 | → | 아버지 | (눅15:21) |
| | 쇼즈들 | → | 애들 | (막10:24) |
| d. | をんな | → | 婦人 | (ヨハネ2:4) |

(9)의 예는 (1)에서 추출했던 호칭명사의 변화를 분석한 것이지만, 더 확장시켜도 진술에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9)의 분석을 통해 한국어에서는 (9b)처럼 한자어끼리의 교체나 (9c)처럼 한자어가 고유어로 바뀌는 예가 많은 반면에, 일본어는 (9a)처럼 고유어가 다른 고유어로 바뀌든가 (9d)처럼 고유어가 한자어로 바뀌는 현상이 한국어와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호칭 변화의 배경을 유추해 보면, 한국어와 일본어가 각각의 호칭명사를 바꾼 배경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선 한국어는 축자역을 유지하려는 흔적과 더불어 한국어 호칭표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전자는 성서번역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것이고, 후자는 성서언어가 어쩔 수 없는 번역어라고 하더라도 한국의 언어문화에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자연스럽게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 (10) a.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⁹⁾ (요17:1)
 b.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부친이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눅15:21)
- (11) a.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녀인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요2:4)
 b. 예수께서 (중략) 이르시되 여자여(←녀인아)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요8:10)

9) 괄호 안은 개역이전의 것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가를 알기 쉽게 보여주기 위해 필자가 편집한 것임. 이하 동일.

- (12) a.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쇼즈야)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요21:5)
 b.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애들아(←쇼즈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어떻게 어려운지 (막10:24)

(10)에서는 『舊譯聖書』의 ‘아버지여’와 ‘부친이여’가 ‘아버지여’로 통일되고 있고, (11)에서는 ‘녀인이여’와 ‘녀인아’가 ‘여자여’로 통일되면서 호격조사에 의해 신분이 구분되었던 두 ‘녀인’이 신분 차이가 없는 동격으로 처리되게 되었다. 이것은 원전에서의 동일한 단어는 동일하게 번역한다는 축자역을 고수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10)의 호칭이 고유어로 통합된 것이나 (12)의 한자어 호칭명사가 고유어 호칭명사로 바뀐 것은 고유어 선택이 성서를 읽는 독자에게 동질감을 갖게 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호칭명사를 바꾸어도 어쩔 수 없이 번역어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것도 있다. 예문 (13)의 ‘인자’가 그러한 예일 것이다.

- (13) 인자야(←인싱아)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겔6:2)

예문 (13)의 ‘인자야’는 초기의 ‘인싱아’라는 호칭이 바뀐 것인데, 참고로 중국어 文理譯 성서에 ‘人子’로, 일본어 성서에 「人の子よ」로 번역된 것을 보면 그 영향으로 볼 수 있다.¹⁰⁾ 한편 한국어 호칭표현은 ‘하나님이여, 주여, 여러분이여, 백성들아, 애들아, …’처럼 『개역성경』에서도 호격조사가 예외 없이 붙는데, 이것은 뒤에서 기술될 일본어와 다른 점이다.

다음은 일본어 『口語訳聖書』에 나타난 호칭표현의 변화이다. 『文語訳聖書』에서 『口語訳聖書』로 개역되는 과정에 나타나는 일본어 호칭표현의 변화는 한국어와 정반대의 현상이 보인다. 즉 한국어에서는 성격이 다른 ‘아버지여’와 ‘부친이여’가 축자역이라는 번역원칙 때문에 ‘아버지여’ 등으로 통일이 되는데, 일본어에서는 『文語訳聖書』에서 『口語訳聖書』로 개역되면서 일본문화에서 자연스럽게 수용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본격적으로 구분되기 시작한다. 가령 『文語訳聖書』에서 「主よ」와 「をんなよ」 등으로 똑같았던 것이 『口語訳聖書』에서는 예문(14)(15)처럼 구분된다.

- (14) a. 「主よ(←主よ)、わたしの子をあわれんでください。」 (マタイ17:15)
 b. 「ご主人様(←主よ)、どうぞ、あけてください。」 (マタイ25:11)

10) 人子当指以色列山而言未来事 以西結書6:2

「人の子よ、あなたの顔をイスラエルの山々に向け、預言して、言え。」エゼキエル書6:2

(15) a. そこでイエスは身を起して女に言われた、「女よ(←をんなよ)、みんなはどこにいるか。」

(ヨハネ8:10)

b. イエスは母に言われた、「婦人よ(←をんなよ)、あなたは、わたしと、なんの係わりがありますか。」

(ヨハネ2:4)

(14)(15)에서 『文語訳聖書』의 「主」가 「主」와 「ご主人様」로, 「をんな」가 「女」와 「婦人」으로 구분되는 배경은 한국어 『舊譯 聖書』에서 ‘아버지’와 ‘부친’이 구분되었던 것과 같은 원리가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성서원전에는 같은 단어로 표기되어 있을지라도, 번역되는 일본문화에서는 동일하게 다룰 수 없다는 인식이다.

성서의 내용을 근거로 (14a)와 (14b)의 상황을 살펴보면, (14a)는 어떤 사람이 예수에게 와서 간질병자인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는 내용으로, 여기에서 「主」는 예수를 가리킨다. 그러나 (14b)는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예수가 비유로 말한 이야기 속에 나오는 것으로, 혼인잔치를 준비해야 할 사람들이 신랑이 늦게 온다고 준비를 소홀히 했다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자 문을 열어달라고 ‘주인’을 부르는 장면이다. 따라서 이 장면의 「ご主人様」는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일본문화에서도 동일한 장면이라면 이것과 일치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주인님’ 정도이다. 일본에서는 성서를 개역하면서 이 둘을 동일시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15)의 「女」와 「婦人」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文語訳聖書』에서는 「をんな」로 같았었지만, (15a)의 여인은 일반의 여자를 가리키는 반면에, (15b)의 여인은 예수의 어머니를 가리킨다. 이것 역시 성서를 개역하면서 축자역을 유지하기보다는 일본인의 언어감정에 맞추어 구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한국어와는 그 순서가 반대라는 것이 주목된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일본어 성서의 개역과정에 나타난 이러한 구분은 존대대상에만 적용될 뿐으로 모든 호칭대상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존대대상이 아닌 경우는 (16)에서 보듯이 통합되는 현상을 보인다.

(16) a. イエスは更に言われた、「子たちよ(←子たちよ)、神の国にはいるのは、なんとむずかしいことだろう。」

(マルコ10:24)

b. イエスは彼らに言われた、「子たちよ(←子どもよ)、何か食べるものはあるか。」

(ヨハネ21:5)

한편 일본어 『口語訳聖書』의 호칭표현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특징 하나는 일부 호칭명사에서 호격조사가 떨어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14b)의 「ご

主人様」와 같은 경우로, 이런 것은 (17)의 「皆さん」에도 나타난다.

(17) 「皆さん(←人々よ)、なぜこんなことをするのか。」 (使徒行伝14:15)

(14b)의 「ご主人様」와 (17)의 「皆さん」에서 호격조사가 생략되는 것은 접미어 「~様」나 「~さん」이 그 기능을 대신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지만, 일본의 성서번역이라는 측면에서 이것이 갖는 의미는 크다. 왜냐하면, 호격조사가 붙은 호칭은 번역어라는 뉘앙스를 계속 갖게 되지만, 호격조사 대신 접미어가 붙은 호칭을 사용한다는 것은 원전의 호칭에 완벽하게 대신할 만한 단어를 일본의 언어문화에서 찾아내 대체시켰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일본어 『口語訳聖書』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은 다음에 볼 『新共同訳聖書』에서 확실하게 정착이 되지만, 모든 호칭명사에 호격조사를 붙이고 있는 한국어 『개역성경』에는 아직 나타나지 않는다.

2.3 「공동번역성서(1977)」와 「新共同訳聖書(1987)」

한국의 『공동번역성서』와 일본의 『新共同訳聖書』에서는 최근의 번역본이라는 것 외에도 두 가지 정도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는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공동번역이라는 점이고, 둘째는 한국의 『공동번역성서』쪽이 조금 더 진보적이지만 둘 다 성서의 축자역 번역원칙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는 점이다.¹¹⁾ 때문에 이들 성서에서 이전의 호칭표현이 또 다시 어떻게 수정되는가를 살피는 것은 각각의 언어연구에도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 먼저 『공동번역성서』와 『新共同訳聖書』에서의 호칭표현에 관한 변화를 개관하면, 한국어에서는 호칭명사의 교체와 호칭의 생략 및 호격조사의 탈락현상 등 대단한 변화가 보이는 반면에, 일본어에서는 『口語訳聖書』에 있었던 변화가 정착되어 가는 정도로 큰 변화가 없음을 알게 된다. 따라서 2.3에서는 크게 변화를 보이지 않는 일본어 『新共同訳聖書』를 우선하기로 한다.

필자가 일본어 『新共同訳聖書』에서 보이는 호칭표현의 변화를 『口語訳聖書』에서의 변화가 정착되는 과정으로 본 데에는 호격조사를 탈락시키는 호칭표현의 증가와 원전에서의 동일한 호칭을 둘로 구분하는 예가 늘어난다는 점에 근거한다.

11) “번역의 원칙은 축자역 번역이나 형식적인 일치(Formal Correspondence)를 피하고 내용의 동등성(Dynamic Equivalence)을 취하여 독자들이 원문을 읽는 사람과 같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공동번역성서』 머리말에서.

“原文と訳文との間のかかわり方や、日本語の文体など翻訳上の方針を、発足当初に志向したところから、協会での典札や礼拝にも用いられるのにふさわしいものとする方向へと改め、その点にそって翻訳が行われた点でも、…” 『新共同訳聖書』의 序文에서.

- (18) a. 「さて、王様(←王よ)、それを解釈いたしましょう」 (タニエル4:21)
b. 「將軍(←將軍よ)、あなたに申し上げたいことがあります」 (列王記下9:5)

(18a)처럼 「王よ」가 「王様」로 변하는 양상은 『口語訳聖書』에서 「主よ」「父よ」등이 각각 「ご主人様」「お父さん」으로 변화된 것과 같은 양상이다. 물론 「王様」 자체가 번역어로서 일본어의 고유어는 아니지만 일본어 속에 이미 정착된 호칭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18b)의 호격조사 「よ」가 탈락된 「將軍」은 어떤 접미어도 붙이지 않았지만, 접미어 없이 관직 자체가 호칭으로 사용되는 일본어의 어법이 적용된 예이다.

한편 『新共同訳聖書』에서 『口語訳聖書』의 호칭표현이 바뀐 것은 필자의 조사로는 다음 (19)의 두 개가 있었다.

- (19) a. 息子は言った。『お父さん(←父よ)、わたしは天に対しても、またお父さんに対しても罪を犯しました。』 (ルカ15:21)
b. イエスは身を起こして言われた。『婦人よ(←女よ)、あの人たちはどこにいるのか。』 (ヨハネ8:10)

(19a)에서 「父よ」가 「お父さん」으로 바뀐 것 역시 (14)에서 본 바 『口語訳聖書』 「主よ」의 일부가 「ご主人様」으로 바뀐 것과 같은 원리이다. 즉 『新共同訳聖書』에서는 『口語訳聖書』의 「父よ」가 (19a)의 「お父さん」과 (20)의 「父よ」로 구분된다.

- (20) イエスは(中略)言われた。「父よ(←父よ)、時が来ました。」 (ヨハネ17:1)

성서 본문을 근거로 이 둘의 배경을 분석하면, (19a)는 사회 일반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장면이고, (20)은 예수가 하늘의 아버지를 부르는 장면이다. 따라서 일본의 언어문화에서는 이 둘을 동일시하지 못하고 구분하는 것이다. 그러나 (19b)의 경우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19b)는 간음하다 잡혀온 보통의 여인을 부르는 장면인데, 「婦人よ」라는 이 호칭은 차이를 구분하는 일본 문화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15)에서 확인한 대로 『口語訳聖書』에서는 예수의 육친의 어머니를 「婦人」으로 호칭하고, 간음하다 잡혀온 이 여인을 「女」로 호칭함으로써 차이를 두었던 것이 『新共同訳聖書』에서는 양쪽 모두를 「婦人」이라는 호칭으로 통일시키고 있기 때문이다.¹²⁾ 필자

12) 일본어 성서번역사에서 (요2:4)와 (요8:10)의 호칭명사는 다음과 같은 변화과정을 보여준다.

의 견해로는 다음에 있을 일본의 성서 개역에서는 「女よ」 등으로 또다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일본어 『新共同訳聖書』의 호칭표현은 크게 (21a)처럼 호격조사 「よ」를 계속 붙인 것과 (21b)처럼 호격조사를 없앤 것으로 구분된다.

- (21) a. 神よ、主よ、父よ、婦人よ、人の子よ、子たちよ、
b. 御主人様、王様、お父さん、皆さん、将軍、

(21a)처럼 호격조사가 붙은 일본어 호칭표현은 기원문이나 시적(詩的)인 표현으로 일본의 일상 언어생활에서는 통용되기 힘든 ‘번역어’라는 뉘앙스를 갖는다. 그러나 (21b)와 같은 호칭은 각각의 해당 장면에서는 성서의 배경이 된 문화와 일본문화 사이에 동질성이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어 『공동번역성서』의 호칭방식에서는 어떤 변화를 찾을 수 있을까. 각주9)에서 밝힌 대로 『공동번역성서』는 축자역 번역보다 내용의 동등성을 번역원칙으로 삼고 있다. 때문에 변화에 파격적인 것도 있으나, 나름대로 작금의 한국어 호칭표현 특징이 바르게 반영되어 있고, 또한 타문화 호칭표현의 수용과정도 객관적으로 살필 수 있다.

우선 『공동번역성서』가 성서번역이라는 점에서 파격적인 곳을 보기로 한다. 그것은 원전에 나타난 호칭을 생략시킨 곳이 많다는 점이다.

- (22) a. 예수께서 (중략) 그 여자에게 “(여자여)¹³⁾ 그들은 다 어디에 있느냐? …” (요8:10)
b. 예수께서는 (중략)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하고 (막2:5)

성서 원전에 나온 호칭을 번역하지 않은 것이 성서번역이라는 측면에서는 파격이지만¹⁴⁾, 상대에 대한 호칭을 생략할 수 있는 한국어 발화장면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사실이다. 특히 (22a)의 경우 ‘여자여’와 같은 호칭은 적어도 한국어에서는 통용되기 어려운 호칭이다. 물론 (21a)의 일본어처럼 번역어라는 뉘앙스를 굳이 갖기로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내용의 동등성을 번역원

	(文語訳聖書)	(口語訳聖書)	(新共同訳聖書)
(요2:4)	「をんなよ」	→ 「婦人よ」	→ 「婦人よ」
(요8:10)	「をんなよ」	→ 「女よ」	→ 「婦人よ」

13) 괄호 안의 호칭은 생략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개역성경』의 호칭을 제시한 것이다. 이하 동일.

14) 1993년 간행된 『표준새번역성경』에서는 『공동번역성서』에서 생략된 호칭들이 모두 복원된다. 따라서 (22a)(22b)도 각각 ‘여자여’와 ‘이 사람아’라는 호칭으로 나타난다.

칙으로 삼은 『공동번역성서』에서 이런 호칭이 생략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¹⁵⁾

한편 일본어 1950년대의 일본어 『口語訳聖書』에서 보이기 시작하던 호격 조사의 탈락현상이 한국어 성서번역에서는 『공동번역성서』에서 일시에 나타난다. 그러나 일본어와 달리 한국어는 호격조사가 붙었다고 해서 한국어 고유의 호칭방식과 구별되는 소위 번역어라는 뉘앙스를 갖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한국어 『공동번역성서』에서의 호격조사는 일본어 성서와는 달리 (23)과 같이 손아랫사람을 부를 때만 남아있기 때문이다.¹⁶⁾

- (23) a. 예수께서 “애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하고 물으시자 (요21:5)
- b. “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산들에게 나의 심판을 전하여라.” (겔6:2)

따라서 한국어 성서에서는 존대대상에 붙는 호격조사 ‘이여’가 모두 탈락됨으로서, 호격조사 탈락이라는 현상은 동일하지만 탈락의 과정은 일본어와 전혀 다름을 보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된다.

- (24) a. ‘주님, 제 아들이 간질병으로 몹시 시달리고 있으니...’ (마17:15)
 「主よ、息子を憐れんでください。」
- b. ‘주님, 주님, 문 좀 열어 주소서.’ (마25:11)
 『御主人様、御主人様、開けてください。』

즉 (24)를 보면, 한국어 성서의 ‘주님’이 일본어 성서에서는 「主よ」와 「御主人様」로 구분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살핀 대로, 한국어 성서의 개역에서는 존대대상의 호칭명사는 일괄적으로 호격조사를 탈락시키고 접미어로 대체시키나, 일본어 성서에서는 존대대상이라 할지라도 일본의 호칭문화와 일치하지 않는 것에는 호격조사 「よ」를 유지시키기 때문이다. 이것은 (19a)와 (20)에서 고찰한 「お父さん」과 「父よ」가 한국어에서는 모두 ‘아버지’로 통합되는 데에서도 확인된다.

한편 한국어 성서에서 호격조사가 탈락하고 독자적인 호칭명사로 대체될 때

15) 일본어 역시 만일 다음 성서개역에서 축자역 번역을 조금만 지양한다면 이와 유사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필자의 견해이다.

16) 일본어 『新共同訳聖書』에서의 호격조사 「よ」는 손윗사람이든 손아랫사람이든 불문하고 붙는다.

イエスに(中略)、言った。「主よ、息子を憐れんでください。」 (マタイ17:15)

イエスは(中略)、中風の人に、「子よ、あなたの罪は赦される」と言われた。(マルコ2:5)

는 (24)의 한국어문에서 보듯이 접미어 ‘~님’이 붙는 것은 접미어 「様」 등으로 호칭을 표현하는 일본어와 양상이 유사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한국어는 (25)와 같은 다양성을 보인다.

- (25) a. ‘하느님(←하나님이여), 멀리 서 계시지 마시고 빨리 오시어 도와주소서’ (시71:12)
 b. ‘주님(←주여), 제 아들이 간질병으로 몹시 시달리고 있으니...’ (마 17:15)
 c. ‘임금님(←왕이여), 해몽은 이렇습니다’ (단4:21)
 d. ‘아버지(←아버지여),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눅15:21)
 e. ‘여러분(←여러분이여), 이게 무슨 것입니까?’ (행14:15)

(25a)의 ‘하느님’은 본래의 단어 속에 ‘~님’이 있어 호격조사 ‘이여’만 탈락된 것이고¹⁷⁾, (25b)의 ‘주님’은 호격조사가 접미어로 대체되고 있다. 그러나 (25c)의 ‘임금님’은 ‘왕님’이라고 하지 않고 어근 ‘왕’을 ‘임금’으로 바꾼 특수한 경우지만, 한국어 어법에는 맞지 않는 호칭임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본래 한국어 ‘임금님’은 지칭명사이지 호칭명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의 견해로는 ‘임금님’이라는 호칭은 다음 개역 때에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한편 (25d)의 ‘아버지’의 경우는 ‘~님’도 붙지 않고 호격조사 ‘여’만 탈락되어 다른 것과 차별이 있으나, 이것은 ‘아버님’이 다시 ‘아버지’로 바뀐 것으로 한 과정이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5e)의 ‘여러분’처럼 어휘 자체에 존칭의 의미가 있을 때는 접미어 ‘~님’이 붙지 않는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대조과정을 두 개의 호칭에 나타나는 변화를 통해 확인하고 본 장을 매듭짓기로 한다. 한국어 『旧訳聖書』에서 인용할 때, 하나는 (요1:49)의 ‘랍비여’라는 이스라엘의 호칭이고, 다른 하나는 (눅9:49)의 ‘선생님이여’라는 호칭이다. 이들 두 개의 호칭은 영어성서 『American Standard Version(1901)』에서도 각각 ‘Rabbi’와 ‘Master’로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어 성서와 일본어 성서 모두 번역초기에는 (26)(27)에서 보듯이 이들을 달리 번역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전개한 순서에 따라 한국어 성서와 일본어 성서를 인용한 것이 각각 (26)과 (27)이고, (28)은 각각의 변화과정을 언어별로 정리해 놓은 것이다.

- (26) Ka.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하느님의 아들이시오 (旧訳)
 Kb.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개역)
 Kc. 나다나엘은 선생님, 선생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공동번역)

17) 한국어 『개역성경』까지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공동번역성서』에서는 ‘하느님’으로 바뀌고 있다.

- Ja. ナタナエル答ふ、『ラビ、なんぢは神の子なり、汝はイスラエルの王なり』 (文語訳)
- Jb. ナタナエルは答えた、「先生、あなたは神の子です。」 (口語訳)
- Jc. ナタナエルは答えた。「ラビ、あなたは神の子です。」 (新共同訳)
- (27) Ka. 요한이 옛즈오디 선싱님이여 우리가 보니 헛사람이 주의 일흠으로 ... (旧訳)
- Kb.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 (개역)
- Kc. 요한이 나서서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 (공동번역)
- Ja. ヨハネ(中略)『君よ、御名によりて悪鬼を逐ひいだす者を見しが、...』 (文語訳)
- Jb. ヨハネが(中略)『先生、わたしたちはある人があなたの名を使って...』 (口語訳)
- Jc. ヨハネが(中略)『先生、お名前を使って悪霊を追い出している者を...』 (新共同訳)
- (28) a. 랍비여 → 랍비여 → 선생님
선싱님이여 → 주여 → 선생님
- b. 라비 → 先生 → 라비
君よ → 先生 → 先生

(28)을 보면, 번역어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한일간 호칭방식이 지난 한 세기 동안 어떻게 달리 변해 왔는가가 대조적 관점에서 알 수 있다. 즉 한국어 『개역성경』에서는 ‘선싱님이여’가 ‘주여’로 바뀌지만 호격조사는 모두 유지된다. 그러나 일본어 『口語訳聖書』에서는 성서의 원전에서 어원을 달리하는 호칭이 「先生」로 통합되고 있으며, 「先生」가 일본에서 존칭으로 사용되는 어휘이기 때문에 호격조사 「よ」가 붙지 않는다. 또한 일본어 『文語訳聖書』의 「ラビ」에 호격조사가 붙지 않은 것은 『口語訳聖書』의 「先生」와, 그리고 『新共同訳聖書』의 「將軍」에서 호격조사가 떨어져나가는 배경을 알게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즉 일본어에서 관직은 호격조사나 접미어 없이도 그 자체가 호칭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도 한국어와 구별된다. 한편 최근의 개역성서인 『공동번역성서』와 『新共同訳聖書』에 이르러서는 한국어 성서가 차이점보다는 유사점에 초점을 맞춰 ‘선생님’이라는 하나의 호칭표현으로 통합되는데 반해, 일본어 성서는 차이점에 비중을 두어 다시 「ラビ」와 「先生」로 구분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도 앞에서의 고찰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3. 맺는말

본고의 목적은 한일 두 나라의 성서번역사를 통해 타문화권의 호칭표현을 수용하는 방식에서 한국과 일본이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여주는가를 고찰

하는 것이었다. 히브리어(구약성서)와 그리스어(신약성서)가 원전인 성서가 한국어와 일본어로 완역된 것이 19세기 후반으로 유사하다는 점과 두 나라 모두 몇 번의 성서개역이 있었다는 공통점으로 인해 접근방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사료된다. 본고에서 비교조사된 성서로는 한국어의 경우 『舊譯聖書(1911)』 『개역성경(1956)』 『공동번역성서(1977)』, 일본어의 경우는 『大正譯聖書』 『口語訳聖書』 『新共同訳聖書』 등 각각 세권씩을 선택했다. 비교방법으로는 초기 번역본인 한국어 『舊譯聖書』와 일본어 『大正譯聖書』에서 호칭명사로 나타난 것을 가능한 많이 추출함으로써 대조의 기점을 삼고, 다음 1950년대 성서와 1980년대 성서에서는 각각 그 이전 번역성서에서의 호칭들이 어떤 양상으로 변하고 있는가를 분석했다. 이하 대조분석 결과를 요약하기로 한다.

첫째, 1910년대 성서인 한국어 『舊譯聖書』와 일본어 『大正譯聖書』에서는 원전의 호칭이 초기에 어떻게 도입되었는가를 볼 수 있었다. 우선 번역된 호칭명사의 어종에서 확인된 차이로는 한국어가 일본어에 비해 한자어 호칭이 월등히 많았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어 성서가 중국어 성서를 중역한 탓으로 보기보다 당시의 한국어 속에 한자어가 이미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한편 1910년대 성서에서는 원전의 호칭을 수용하면서 한일 두 나라 모두 호칭명사에 호격조사를 부치는 공통점을 보여주었다. 다만 한국어는 호칭대상이 존대인가 하대인가에 따라 ‘이여’와 ‘아’로 구분되나, 일본어는 아무 차이도 없이 「よ」로 통일되어 나타났다. 때문에 일본어 「をんなよ」라는 호칭이 한국어 성서에서는 ‘녀인이여’와 ‘녀인아’로 나타남으로서 한국어는 호격조사의 유형이 곧 호칭명사의 신분을 보여주는 것임을 확인했다. 또 하나 1910년대 두 나라 성서의 호칭표현 수용과정에서 확인된 차이는 성서원전과 관계없이 호칭을 세분하는 분야가 다르다는 점이다. 이것은 성서 원전의 한 가지 호칭이 각각의 성서에서는 둘로 표현되는 경우로, 한국어 성서에서는 ‘아버지여’와 ‘부친이여’의 구분에서 보듯이 존대대상을 중심으로 누가 누구를 부르는가가 고려되는 반면에, 일본어에서는 하대대상에서 「子どもよ」와 「子たちよ」가 구분됨으로서 친밀도의 정도에 따라 호칭방식이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1950년대 성서에서는 1910년대 성서에 나타난 호칭표현들이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가를 보았다. 우선 1950년대 두 나라 성서의 호칭표현 변화에서 가장 크게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어 성서와 일본어 성서에 나타나는 변화가 정반대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점이다. 즉 한국어 『舊譯聖書』의 ‘부친이여’와 ‘아버지여’, 그리고 ‘녀인이여’와 ‘녀인아’ 등 세세한 차이점을 구분하던 호칭이 『개역성경』에서는 각각 ‘아버지여’와 ‘여자여’로 통일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어 『口語訳聖書』에서는 『文語訳聖書』의 「主よ」나 「をんなよ」 등 하나로 번역되었던 호칭들이 각각 「主よ」와 「ご主人様」, 「女よ」와 「婦人

よ」 등으로 구분하고 있었다. 필자는 이것을 한국어는 성서번역의 기본원칙인 축자역으로의 회귀로, 일본어는 일본인의 언어문화에 의한 여과로 보았다. 한편 호격조사 탈락현상이 1950년대 일본어 성서개역에서 먼저 보이기 시작한다. 번역된 호칭이 「ご主人様」처럼 일본문화의 일반적인 호칭과 일치한다고 간주될 때는 「様」라는 접미어가 붙는 호칭방식을 선택하고, 호격조사 「よ」는 탈락시킨다는 것이다. 한국어 『개역성경』에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일본어 『口語訳聖書』에서도 「ご主人様」 하나에 실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셋째, 1970년대와 1980년대 번역 성서에 나타난 변화이다. 한국어 성서는 1950년대 성서에서 기대되었으나 나타나지 않았던 현상들을 비롯해 일본어 1980년대 성서보다 더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반면에, 일본어는 1950년대 성서에서 나타났던 변화가 정착되는 양상을 보였다. 바로 이런 것들이다. 먼저 일본어 『新共同訳聖書』에서는 『口語訳聖書』의 「父よ」가 「父よ」와 「お父さん」으로 구분된다든가 「王様」「將軍」처럼 호격조사 「よ」가 탈락된 호칭이 증가한다. 한편 한국어 『공동번역성서』에서는 축자역이라는 성서번역 원칙에서 일부 일탈하면서 원전에 나타난 호칭 자체를 번역으로부터 생략시키는 경우가 몇 개 나타났다. ‘여자여’처럼 한국인의 일반적 언어습관에 맞지 않는 것의 생략이 하나의 예이다. 또한 1950년대 일본어 『口語訳聖書』에서 보이기 시작한 호격조사 탈락이 한국어 『공동번역성서』에서 일시에 나타난다. 그러나 그 양상은 일본어와 달랐다. 이것은 각각의 호격조사가 그대로 유지되는 호칭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는 바, 한국어 『공동번역성서』에서는 ‘애들아’처럼 하대의 호칭에서만 호격조사 ‘아’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반해, 일본어에서는 「主よ」나 「子よ」처럼 호칭대상이 존대이든 하대이든 관계없이 호격조사 「よ」가 여전히 남아있다. 왜냐하면 접미어 등으로 교체되면서 호격조사가 탈락되는 환경이 한국어는 호칭상대가 존대인 경우는 모두 적용되는데 대해, 일본어는 신분의 지위가 아니라 일본사회 호칭문화와의 일치여부가 관여되기 때문이다.

【参考文献】

- 예수성교전서(로스역, 1887)
- 舊譯聖書(1911) 조선성서공회
- 개역성경(1956), 대한성서공회
- 공동번역성서(1978), 대한성서공회
- 표준새번역 성경(1993), 대한성서공회
- 新約聖書(明治譯、1880)、翻譯委員社中
- 新約聖書(大正文語譯、1917)、聖書改訳委員会
- 旧新約聖書文語譯(2006)、日本聖書協會
- 聖書(口語訳、1955)、日本聖書協會
- 聖書(新共同訳、1987)、日本聖書協會
- 文理新旧約聖書(1933), 대한성서공회 소장본
- 『American Standard Version(1901)』, <http://www.biblegateway.com>에서
- 대한성서공회(1994), 『대한성서공회Ⅱ』 p34~45, 119~187
- 대한성서공회(1995), 『성서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p43~53
- 민영진 전무용(2006), 「한국어 번역 성경에 나타난 중국어 성경과 일본어 성경의 영향」, 『성경원문연구』 제19호,176~196
- 안증환(2005), 「성경번역에서 본 한국어와 일본어(1)」, 『日本文化學報27』
- 정길남(1994), 『성서의 우리말 연구』, 서광학술자료사 p81~106
- 門脇 清、大柴 恒(1983)、『日本語聖書翻譯史』、新教出版
- 関根文之助(1982)、『聖書の言葉と日本語』、福永書店
- 広剛(2005), 『개화기 한국어 성서의 번역어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要 旨

本稿の目的は翻訳書である韓国語聖書と日本語聖書の通時的な対照を通して、異文化で使われる呼称の受入れ方や変わり方に存在する共通点と相違点を考察することにあつた。聖書翻訳の基本原則は逐語訳であるため、始めの聖書翻訳では聖書原典の呼称に対する翻訳語を作り出すことに集中していた。しかし改訳が重なるにつれ最初翻訳された呼称表現が各々の言語文化に合わせて変わるようになる。これが本稿の研究動機である。本稿で対照の資料になった聖書は次の通りである。つまり、韓国語の聖書としては旧訳聖書(1911)と改訳聖經(1956)そして共同翻訳聖書(1977)であり、日本語のものとしては文語譯聖書(1917)と口語訳聖書(1954)そして新共同訳聖書(1987)である。対照資料の選択の基準は何よりも刊行時期の類似性を念においた。すなわち、1910年代韓国の旧訳聖書と日本の文語訳聖書、1950年代韓国の改訳聖書と日本の口語訳聖書、それから1980年代韓国の共同翻訳聖書と日本の新共同訳聖書である。以下本稿で行われた研究結果をまとめる。

第1、1910年代聖書の対照からは次の二つである。一つ目は翻訳に使われた呼称名詞の語種であるが、韓国語の方が日本語に比べ漢語から由来した呼称名詞が著しく多かった。これは当時の韓国語の中にも深く漢語が根付いたからであろう。二つ目は二国の呼称名詞には共に呼格助詞がついていたことである。ただし、韓国語は尊敬の対象語には‘여’が付くが、そうでない語には‘아’が付く。このように、韓国語の呼格助詞は呼称対象にしたがって助詞の区別があるけれど、日本語の場合はそういう区別なしに「よ」によって統一している。

第2、1950年代聖書の対照結果である。この時期には韓日両国の聖書の呼称に変化が出てくるが、それぞれの変り方は異なる。すなわち、韓国語では‘부친이여’と‘아버지여’、‘녀인이여’と‘녀인아’のように旧訳聖書(1911)で見られた区分がなくなり‘아버지여’と‘여자여’に統一される。しかし日本語では文語訳聖書(1917)の「主よ」や「をんなよ」などが具体的な発話場面によって「主よ」と「ご主人様」あるいは「女よ」と「婦人よ」に変わるようになる。また、日本語の聖書では「御主人様」など一部の呼称名詞で呼格助詞の脱落現象が見られるが、このような現象は未だ韓国語の改訳聖書では出ていなかった。

第3、1980年代聖書の対照結果である。この時期では韓国語の聖書は呼称の示し方に急進的な変化を見せる反面、日本語の聖書は1950年代聖書に出ていた変化が定着していく。日本の場合、たとえば、「父よ」が日本文化と一致するかどうかによって「父よ」と「お父さん」に分かれるか、「王様」や「将軍」のように呼格助詞なしの呼称が増えてくる。一方、韓国語の聖書では原典に出ている呼称そのものが省略されることが目立たれる。そして、この時期韓国語聖書でも日本語聖書でのように呼格助詞の脱落という現象が出てくるが、在り方は日本語と異なる。つまり、韓国の聖書での呼格助詞の脱落は相手が目上の場合に限られていた。

以上のような本稿での研究は新しい翻訳語の生成過程と共に、それらの翻訳語が時間と経

つにつれて各々の国の言語文化に合わせて変わっていくプロセスを示したと思う。

キーワード：呼稱表現, 呼格助詞, 翻譯語, 聖書言語, 逐字譯, 統一と區分

투 고 : 2007. 5. 31
1차 심사 : 2007. 6. 9
2차 심사 : 2007. 6. 30

住 所 : (300-791)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133 한남대학교 일문과
電 話 : 042-629-7340
e-mail : ajw7340@hanmail.net